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7호 【루계 제24500호】 주체103(2014)년 3월 2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2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먼저 류경구강병원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기뻐하시였다.

조선로동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구강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옥류아동병원에도 들리시여 병원일군들로부터 관리운영과 의료봉사활동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보도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또한 혁명강군과 군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로씨야의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노바야 가제따》, 마야크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미르 이 뽈리찌까, 로스발뜨, 렌따. 루, 가제따. 루, 웨스찌. 루, 우뜨로. 루도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체스꼬준비위원회가 5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프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수리아준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 파이루즈 무싸가, 서기장으로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마히르 쿠르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을 맞으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끼르기즈스딴준비위원회가 17일 비슈께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예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따쥐끼스딴준비위원회가 18일 두샨베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쉐. 샤브돌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에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말레이시아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돔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청칭치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양절경축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준비위원회는 4월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 *

태양절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가 방글라데슈로동당, 공산당, 인민련맹,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의 공동발기로 19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집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지름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인것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키고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자기들을 굳게 믿고 농업생산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필승의 보검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봄철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문구들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농업근로자들모두가 불멸의 대강을 높이 추켜들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농업부문 분조장들이 당앞에 지닌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분조장들은 분조장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분조장들이 지니고있는 임무는 곧 당과 조국의 믿음이고 기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중시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분조장들앞에 나서는 5가지 임무를 밝혀주신것은 우리 분조장들에 대한 원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는것은 우리 분조장들의 본분이며 도리이다.

분조장들이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며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들이다. 분조의 농업생산성과는 분조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모든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오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다. 그 전초선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들이 바로 매 분조의 농업근로자들이며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휘관은 분조장들이다. 분조장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전초선이 허물어지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

분조들이 끓어야 온 나라 농촌이 들끓고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농촌집단생활과 생산 및 로력조직의 말단단위인 분조를 유기체에 비유해 말한다면 한개 세포와 같다.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유기체가 병들어 쓰러지는것처럼 분조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농장의 농사일이 기울어지고 나라의 쌀독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분조장들을 믿고 이처럼 중요한 초소인 분조를 맡겨주었으며 뜻깊은 올해에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맡겨준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혁명가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이다. 이번 대회에서 토론한 모범적인 분조장들의 경험은 분조장이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피타게 사색하며 실천할 때 분조의 농업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농업부문앞에는 알곡과 고기, 남새, 버섯, 누에고치 등 모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분조장들모두가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면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사상과 정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여있는 대백과전서이다.

분조장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앞장에 서야 한다. 특히 당의 농업정책과 방침을 깊이 학습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새기고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분조장의 5가지 임무에는 우리의 분조장들이 한생의 사업과 생활에서 교본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지침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모든 분조장들이 당과 조국이 바라는 농촌초급일군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5가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분조장들은 5가지 임무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사고와 실천의 무기로 만듦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야 한다.

모든 분조장들은 농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생산은 단순히 쌀이나 고기, 남새를 생산하는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이번 분조장대회에서 토론한 숙천군 약전농장 제8작업반 2분조장과 어랑군 운곡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제8작업반 염소관리분조장을 비롯하여 농축산물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한 분조장들의 경험은 농업생산을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작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분조장들은 이들의 모범을 적극 본받아 포전을 전초선의 1선참호로, 쌀을 총탄처럼 여기고 땅을 기름지게 걸구어 곡식을 정성다해 가꾸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섬으로써 온 분조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열풍이 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확고한 신념으로, 가장 정당한 행동의 지침으로 간직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가는 투쟁정신과 기풍은 우리 분조장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분조장들은 자기들이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분조장들은 과학농사의 철저한 집행자가 되여야 한다. 자기 집안일처럼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력상태와 자연기후적특성을 환하게 알아야 하며 품종별농작물의 재배방법과 기술에 정통하여야 한다. 선진농업과학기술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 부문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알곡만이 아니라 고기, 남새, 버섯, 누에고치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하겠다는 야심밑에 밤잠을 잊고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한다.

모든 분조장들은 분조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제3작업반 1분조장,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장, 개천시 룡진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장을 비롯한 많은 분조장들의 경험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투하된 로력일과 영농자재, 생산된 농축산물량을 따져가면서 농업생산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 끝장을 볼 때까지 실천하여야 한다.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토지와 농기계, 부림소, 영농자재들을 자기 재산, 자기 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분조장은 분조의 맏형이나 같다.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제6작업반 1분조장, 단천시 화장협동농장 제1작업반 1분조장처럼 《우리 분조장》으로 불리울 때 분조가 무슨 일에서나 첫자리를 차지할수 있다. 모든 분조장들은 이들처럼 분조원들과의 사업을 철저히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머리속을 손금보듯 들여다보아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분조장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참으로 크다. 온 나라의 분조장들은 당과 국가앞에 지닌 책임감을 무겁게 자각하고 자기들의 긍지와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높은 농업생산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과 조국이 우리의 분조장들을 지켜보고있다. 모든 분조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시대 애국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일군양성기관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의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로동신문사 실장 홍병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은 사상으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로작은 무엇보다도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과업을 제시한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에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철저히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사상사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는 기본방향을 밝혀주고있다.

로작은 다음으로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력사적문헌이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과학적이며 참신한 형식과 방법을 제시한 고귀한 지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사상일군들이 매 사람의 머리속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보고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모든 일군들이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명언이다.

다음으로 로작은 사상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참된 교과서이다.

로작의 구절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품들여 키워 내세워주신 우리 당사상일군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사상일군이라는 값높은 영예와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당과 혁명대오의 제일선에서 사상적전초병, 능숙한 정치활동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로작을 받아안은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위대한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온 사상전의 력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부강좌장 박사, 부교수 박명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력사는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된 사상전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곧 동지이고 총대이며 동지와 총대를 얻는 가장 정확하고 위력한 힘이 바로 진리로 집대성된 위대한 사상에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확증하시고 사상사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무르익히신 자주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ㅌ. ㄷ》가 결성되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는 무장투쟁로선을 기치로 하여 건설동지사가 탄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육성된 동지들이 강도 일제를 무찌르는 항일무장대오를 이루었으며 사대와 교조를 짓부시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전인미답의 조선혁명이 개척되였다.

혁명사상에 담긴 진리의 거대한 힘은 조선혁명의 성과적개척을 위한 혁명의 무기를 마련하는데서도 결정적인 작용과 역할을 하였다.

토론자는 우리 혁명의 1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며 항일전쟁을 개시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사상전의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관과 시련을 동반한 조선혁명수행의 전 로정에서 변함없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창조와 건설, 비약과 혁신의 일대 서사시를 펼쳐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혁명적군인정신과 그것을 구현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로 이겨낸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주필 한광일은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된다는 사상에는 무엇보다도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사상조류들이 극복되고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이룩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된다는 사상에는 또한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대를 이어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가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대로 이 땅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과제를 가장 용의주도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이다.

선군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천하의 만고역적들이 감행한 추악한 배신행위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도전하는 분파행위가 바로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적배신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당, 반혁명이라는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교수, 박사 김혁모는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경제분야에서도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토론자는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전선도 과학전선도 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면으로 계속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빛나는 계승발전

지금 온 나라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것이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로 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주의의 사상리론적재부들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신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계승발전입니다.》

혁명은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정은 혁명사상의 발전과정이다. 수령의 사상이 빛나게 계승발전되는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선 김일성주의가 내세운 력사적사명을 그대로 계승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의는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김일성주의의 력사적사명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온갖 착취와 압박,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참답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력사적사명역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필생의 사명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신념의 맹세를 다지신것은 수령님의 혁명위업계승의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정당성, 거대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이였으며 장군님의 혁명령도의 전로정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그 구성을 그대로 계승한 위대한 사상이다.

사상의 계승은 력사적사명뿐아니라 그 진수와 구성을 그대로 계승할때라야 직접적인 계승으로 될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가 진수로 삼고있는 주체사상을 그대로 자기의 출발점으로, 원리적기초로 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구성에 있어서도 김일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 사회를 일떠세우는 투쟁인 혁명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인 투쟁원리와 정확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며 대중을 이끄는 묘술을 찾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던 나날에 혁명의 지도사상은 마땅히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리론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옳은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옳바른 활동원칙,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지도사상에서 사상, 리론, 방법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독자성을 가지는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되여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직접적, 혁명적계승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에 맞게 심화발전되여야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거대한 견인력을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을뿐아니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풍부히 하시여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고 완성되며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혁명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선군혁명원칙과 선군정치리론등 선군시대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전략전술적문제들이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정식화를 주시고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해나갈데 대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위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주의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이미전부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여왔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일주의는 아무리 파고들어야 김일성주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자신의 존함과 결부시키는것을 극력 만류하시였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오수경

혁명의 계주봉

혁명은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된다.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계주봉을 잘 이어주고 넘겨받아야 한다. 혁명선배들이 혁명의 계주봉을 어떻게 넘겨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 후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어받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위업이 자기의 전통과 력사를 빛나게 계승하며 꿋꿋이 이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대들에게 혁명의 계주봉을 잘 넘겨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할 혁명의 계주봉은 사상적계주봉이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불굴의 혁명정신,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계급의식, 완강한 투쟁기풍과 고상한 생활기풍 등 혁명하는 인민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재보가 우리가 말하는 혁명의 계주봉이다.

사상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지 않는것처럼 혁명선렬들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라고 하여 후대들이 저절로 혁명사상, 혁명정신의 체현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새 세대들에게 사상적계주봉을 넘겨주지 못한데 있다.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을 따라 혁명위업에 한몸 다 바친 투사들이나 전화의 불길을 헤쳐온 로병들, 부강조국건설과 사회주의수호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계주봉은 첫째도 둘째도 혁명사상, 혁명정신이다.

사상의 힘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으로 완성되여나가는것이 혁명위업이다. 사상진지가 약화되면 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면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이 투철하고 정신력이 강해야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있고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혁명전통이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참다운 귀감들이 있다. 이것은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귀한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커다란 자랑으로, 긍지로 여겨야 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것을 확고히 계승해나가야 한다.

전세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 선렬들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갈 때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가고있다.
—북창옷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사상사업에서의 집중포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사상의 포문을 열고 강력한 집중포화를 들이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를 들이댄다는것은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이 사상공세의 기동성과 집중성을 보장하고 화력밀도를 높여 사상사업에서 보다 큰 실효를 얻는다는것이다. 온 사회를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교양사업도,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정치사업도 대담한 공격전으로 해나가는것이 사상사업에서의 집중포화라고 말할수 있다.

사상사업의 집중포화를 들이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에서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광범한 대중에게 신속히 알려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전국을 일시에 들었다놓을수 있는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다. 당에서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 교양, 강연, 선동망들과 출판보도수단들이 신속히 총동원되여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심심산골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려주어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지하막장과 농장포전, 과학연구기지들에 기동적으로 달려나가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상일군들이다. 사상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속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자기 단위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애국적헌신성으로 당을 받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나가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가슴을 끓이도록 전투성과 호소성을 철저히 보장해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의 집중포화를 들이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에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는것이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근본열쇠가 있다.

정치사업의 무대를 들끓는 현실에 옮기고 사상사업을 항일유격대식, 화선식으로 쇠소리가 나게 하여야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선전선동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대중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품을 들여 착실히 잘 준비하여야 그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지니고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된다.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면서도 현실성있게 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의 집중포화를 들이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리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였다.

사상일군들은 방송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구두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극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이 비약과 혁신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대중과 심장을 맞대고 생산현장에서 속보도 쓰고 노래도 부르며 전투적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켜야 한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 혁신자축하모임, 취주악대활동 등 기동성과 효률성, 시기성과 호소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선동의 훌륭한 형식과 방법들을 계속 탐구하고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모든 전투장들에 차넘치게 하는데서 광범한 군중을 선전선동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사상전선의 기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전국을 들끓게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룡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숭고한 애국정신을 심어주시여

위대한 애국의 호소가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이 부름에는 온 나라에 애국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지가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두해전 3월 2일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야전차가 전선길을 달리고있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달리는 야전차뒤로 나무모들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따르고있었다.

적들의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과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로 천만군민의 보복일념이 하늘끝에 닿고있던 그때 그이께서 어찌하여 나무모들을 가지고 전선시찰의 길을 가시는지 아직은 누구도 몰랐다.

험한 산발을 넘고넘으시여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사이 화물자동차에서 나무들을 내리운 일군들은 나무를 심을 구뎅이를 파놓는 등 준비작업을 하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마침내 부대를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마당으로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무심을 장소를 더듬어찾으시던 그이께서는 구뎅이를 미리 파놓은것을 보시고 이런것은 형식주의라고, 자기가 구뎅이를 직접 파고 나무를 심어야 식수라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죄책감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수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라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일군들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라는 표현을 마음속으로 곱씹어외우며 흥분을 걷잡지 못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새 삽을 찾아드시고 맞춤한 자리를 골라 힘있게 삽날을 박으시였다.

잠시후 구뎅이파기가 끝나자 일군들은 거기에 나무를 조심히 들여앉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무심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새로 심은 나무들의 모양새와 비례관계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며 나무는 비례를 잘 맞추어 심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정성들여 나무를 심으시고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단 한점의 티라도 앉을세라 세심히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세계는 얼마나 순결한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것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늘 강조해오시였다고, 식수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그러시면서 조국산천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끝없이 사랑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불러만 보아도 얼마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르는가.

나라와 민족마다 애국을 제창하고있다. 저마다 자기의 국기를 신성하게 대하고 자기의 국가를 더없이 존중하며 자기 민족이 낳은 애국자들을 내세운다.

반만년의 력사가 흘러온 이 땅에도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세세년년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휘날릴수 있는 위대한 애국사상과 정신을 남긴 위인,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들도 견줄수 없는 불세출의 애국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들여 가꾼것을 보시면 그리도 기뻐하시며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시였고 인민들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소행을 보고받으시면 대견히 여기시며 친필서한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번듯하게 정리된 풍요한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애국의 정서를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다. 머나먼 이국땅에 가시였을 때마다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못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군 하시고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색과 구상으로 잠 못 드신것은 장군님의 애국심이 얼마나 열렬하였는가를 말하여준다.

총대를 조국수호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게 하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여 이 땅에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공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진정 우리 장군님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고 한생을 영웅적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국가령도자들도 많지만 걸출한 위인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애국주의는 없다.

강성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천만군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사상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장군님의 위대성을 만방에 떨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충정과 숭고한 업적을 우리는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속에서 타오르던 애국의 불씨로 온 나라에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수절이후에도 여러 기회에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시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2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그 본질과 특징, 그것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며 장군님께서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애국유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번영을 위한 길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를 비롯한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이 섬방어대는 백점, 만점짜리 부대, 방어기지로부터 타격기지로 전환된 부대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감시소를 내려오시는 길에서 일매지게 깔아놓은 조약돌을 보시고서는 얼마나 알뜰한가, 이게 바로 우리 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이라고 치하하시였고 정갈하게 꾸려진 휴식터를 보시고서도 싸움군들의 생활터전답게 병영을 잘 꾸렸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나무들과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조국의 최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애국자들인 섬방어대군인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발휘하는데서도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여서도 이 공장 종업원들처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자기의 더운 땀과 지성을 바치는것이 애국주의발현이라고, 모든 단위들에서 이 공장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정일애국주의는 창조와 비약으로 약동하는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일떠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투쟁의 구호로 높이 들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정일애국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을 따라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1면에서 계속

나라의 쌀독이 가득가득 채워져 인민들의 식탁이 풍성해지고 최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쾅쾅 쏟아져나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 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은 최대로 높이 발휘될수 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또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이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든든한 기초이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지난날에는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때문에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무한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으로 사상정신령역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으로 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죠아사상문화에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게 할수 있다.

토론자는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는 사상의 미싸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대적언론전과 전파전을 힘있게 벌리면 적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 우리의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과시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좌장 부교수 서경남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것은 사상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작에 밝혀진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댈데 대한 사상은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의 원리를 당사상사업에 그대로 구현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천명한 혁명적사상공세의 백승의 지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방도가 바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는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에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사상의 포문을 열어 초토화해버릴 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수 있다.

다음으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위한 사상전에서 된바람을 일으키는 위력한 무기이기때문이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사상전의 과녁을 정하고 우리 당의 사상으로 만장약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 방법들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댈데 대한 사상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당한 지침으로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탁월한 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의 맨 앞장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열정이 안아온 열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눈부신 아침해살이 작업장안에 비쳐들었지만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인 리천출, 문명진동무들이였다. 뜬눈으로 온밤을 새우며 피타게 노력했지만 여든번째 실험도 또 실패였다.

(우리가 이 과제를 꽤 해낼수 있을가?)

리천출동무의 머리속에 지나온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파견되여와서 얼마 안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또 다시 찾아주시였다.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조사업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그는 뼈에 새기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연마석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이 유훈으로 될줄이야.

피눈물의 언덕에서 그는 맹세다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 피와 땀을 다 바치는것으로 3대혁명전위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업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며 견인불발의 투쟁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현실로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명진동무가 탐구의 길에 함께 나섰다. 시간을 단축하려 그들은 문헌자료연구와 실험을 같이 내밀었다. 열번, 스무번, 쉰번…

실패가 거듭되자 주위사람들속에서 뛰뛰한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저들이 꽤 하긴 하겠는가. 그렇게 쉬울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오래동안 수입하여 썼겠는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솟구쳐올랐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구한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하지만 탐구의 길은 헐치 않았다. 밤깊도록 소성, 건조작업을 하다가 쓰러진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이 바로 3대혁명전위,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밑에 분발하여 일어나군 하였다. …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거듭되는 실패에 맥을 놓고 쓰러졌던 그들은 소스라쳐 일어났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도 몸소 찾아오시여 혁명의 년대마다에 언제나 한마음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온것은 락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시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기계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락원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새 세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3대혁명소조원들이다!

마주보는 눈빛들이 뜨거워졌다.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그들은 다시금 달라붙었다.

102번째 실험을 하는 날이 왔다. 그날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며칠 앞둔 날이였다. 소성, 건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연마석으로 구면연마작업을 해보았다.

성공이였다. 자기들의 충정과 열정이 어린 귀중한 창조물을 어루쓰는 소조원들의 얼굴에는 격정의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구면연마석은 그해에 진행된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그들은 또다시 유압실린더생산에 쓰일 연마석연구에 달라붙었다.

구면연마석연구에서 어지간히 경험을 쌓아 헐할것 같았으나 막상 해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백수십번의 실험끝에 초벌, 중간연마석연구에서 성공하고 완성연마석제작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자기들이 만든 연마석을 가지고 실린더가공을 해보다가 새벽녘에 지쳐 쓰러진 리천출동무의 귀전에 귀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새 우리가 바쁘다고 소조원들의 연구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려왔소. 유압식굴착기생산의 중요한 몫을 스스로 맡아나선 기특한 소조원들을 잘 도와줍시다.》

당위원회책임비서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뭉클하였다. 어머니당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들을 알게 모르게 따뜻이 보살펴주고있었던것이다. 기술자들을 붙여주고 현장집체협의를 조직해주었는가 하면 자재문제도 풀어준 일군들이 오늘은 현장에 찾아와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연마석문제는 전적으로 소조원동무들에게 맡긴다고 고무해주는것이였다.

리천출동무의 눈가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저도모르게 새 힘이 솟았다.

(이 한몸이 점결제가 되여서라도 성공의 날을 앞당겨오리라!)

련합기업소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소조원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무렵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40돐을 맞으며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가 소조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소조원들은 신포향주철직장 생산공정현대화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장충혁, 김동명동무들은 생산실천이 긴절하게 요구하는 3t천정기중기의 원격조종을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종전의 유선조종체계를 가지고는 주물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없기때문이였다.

한달동안의 전투끝에 첫 실험을 하는 날이 왔다. 이따금 오동작하는것이 문제였다.

그들은 잠도 휴식도 잊고 원인규명에 달라붙어 끝내 찾아냈다. 작업장에 유도로를 비롯한 전기설비들이 많은데로부터 전자기파의 간섭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것이였다. 그것을 극복하는데는 더 큰 품이 들었다.

도전자업무연구소에 장충혁, 김동명동무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연구사들과 진지하게 토의하고는 밤에는 밤대로 직장에서 실험을 하느라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창조의 희열이 넘쳐났다.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긴 청춘들의 열정은 끝내 성공을 안아왔다. 주파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3t천정기중기의 원격조종체계를 완성한 그들의 성과를 두고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규소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리형제연구 등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하여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박영찬, 문명진, 오경원, 김창수, 김학범동무들…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CNC플라즈마절단기를 만들어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렸던 소조원들의 뒤를 이어 3대혁명소조원들은 한해동안에 70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마석연구에서 성공하여 실린더생산원가를 80%나 절약하고 유압식굴착기의 가동률을 1.5배이상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시약처리에 의한 철근연신방법을 창안하여 용접봉심선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준 리천출동무는 지난해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장에서 소조책임자 김동명동무는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은 우리 소조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아온 열매입니다.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락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가렵니다.》

그렇다.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3대혁명전위들의 심장, 바로 이것이 창조와 혁신의 근본원천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향란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은을 낸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함흥모방직공장에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편직사생산공정이 큰 은을 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 꾸려진 편직사생산공정을 잘 운영하여 질좋은 편직사를 팡팡 생산하고있다.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한 동해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경공업성의 방조밑에 공장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새로 꾸린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원료와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맞게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편직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편직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생산조직을 잘하고 소면기, 련조기, 정방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설비들을 돌리면서 질좋은 편직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일군들은 혼타, 소면, 련조, 정방, 권사공정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해주고 매 공정에서 로동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련조방작업반, 정방작업반, 권사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분초를 쪼개가며 편직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분발해나서고있다. 그리하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수리공들인 김용기, 리철혁동무들은 교대가 따로 없이 기대결을 떠나지 않고 제기되는 일들을 제때에 처리하여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열설비운영을 잘하여 편직사생산을 잘 뒤받침해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편직사의 질을 높이자면 지열설비운영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증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 설치한 지열설비들에 정통하고 그 운영을 잘하여 편직사공정에 온습도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회전로개건공사 마감단계

청진제강소에서

청진제강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3호, 4호회전로현대화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호, 2호회전로현대화공사를 지난해 100여일동안에 끝냈던 그 기세로 지금 3호, 4호회전로현대화공사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회전로들의 현대화가 실현되면 로동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연료와 전기를 절약하면서 철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마련된 자립적토대가 은을 내게 하고 현대화,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청진제강소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회전로들의 현대화를 빠른 기간에 다그쳐 끝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제강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3호, 4호회전로현대화공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강력한 기술력량이 무어지고 현대화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강소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기술협의회와 총화사업을 짜고들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공사의 많은 몫을 담당한 설비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불가능하다고 하던 로동체의 편심차를 대폭 낮추고 감속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의 설치와 로동체보수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축로직장과 제관조립직장, 운수직장에서는 몇달은 걸려야 한다던 여러기의 석회배소로건설을 수십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제관조립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장치들을 제작하여 석회잔사공급계통을 새로 꾸려놓았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관품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가공직장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백점에 달하는 가공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고있다.

기술발전과와 콤퓨터실, 설계실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현대화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서 절박한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고있다.

제강소에서는 과학적인 정량공급체계를 세워 무연탄소비를 훨씬 낮추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새로 꾸리고 열풍되돌이기술을 받아들여 회전로의 안전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3호, 4호회전로현대화공사는 지금 마감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만포화학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만포화학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3월 15일까지 1.4분기 비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누, 수지일용품은 질이 좋아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그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고있는 비결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킨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로동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질좋은 비누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결심을 더욱 굳혔다.

당조직에서는 기름작업반, 비누작업반, 수지일용품작업반, 공무작업반에서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많이 내놓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능률적인 생산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새로 갖추어놓았다.

그 과정에 비누생산은 종전에 비해 몇배로 뛰여올랐고 질도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누, 수지일용품생산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온도수감요소를 비롯한 많은 자동화요소들과 기구들을 마련하여 비누, 수지일용품생산설비들에 도입하였고 콤퓨터조종실도 새로 꾸렸다.

현대적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한 보람은 실로 컸다.

작업현장들의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게 되였으며 비누, 수지일용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종전에 비해 전력소비는 30%이상 낮출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생산하여 시적인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천수백㎡의 기본생산건물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개건보수하고 창고와 차고를 비롯한 보조건물, 문화후생시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

참으로 공장은 기술혁신으로 흥하는 멋쟁이공장,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보배공장이다.

공장에서는 여러 정보의 원료기지에서 생산한 비누원료를 가지고 월별, 분기별 비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기술혁신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 공장일군들의 일본새와 투쟁기풍, 좋은 경험을 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본받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영광의 일터에 보답의 열정 나래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이곳 방직공들의 생산열의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들은 날마다 더해지는 친어버이정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천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온 나라가 발을 맞추어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다면 가까운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구상은 현실로 꽃펴날것입니다.》

모두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 어느 현장에 들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일터를 떠나고싶지 않아 밤낮을 모르고 기대를 돌리고 또 돌리는 미더운 방직공들의 드높은 열의, 비약의 령마루에로 치닫고있는 전투장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 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

《우리 직장은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한적이 없습니다.》

낮교대출근길에서 만난 직포공 리명순동무는 혁신으로 들끓는 직장안의 열띤 분위기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직포공 리명순동무, 그는 선군시대 공로자이며 다기대운동선구자들중의 한사람이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아련한 얼굴과 단단한 체격은 소문난 직포공의 기개를 잘 엿볼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1직포직장 전체 종업원들의 심정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직포종합직장에서뿐아니라 공장적으로도 기둥직장, 핵심단위로 당당히 불리운다는 1직포직장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렬을 지어 늘어선 철편직기들이 가락맞춰 돌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직기들이 기세좋게 돌아가는 광경은 직장의 높은 실적을 첫눈에 가늠하게 하였다.

부지런히 현장을 순회하는 교대부직장장이며 긴장하게 기대들을 점검하고있는 수리공들의 모습이 얼핏얼핏 보였다.

현장에서 우리는 직장장 주영복동무를 만났다. 그는 만부하, 만가동이라는 말을 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보장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뭐 니뭐니해도 기계설비들의 상태가 백점, 만점이라고 할수 있어야 생산능률이 오를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직기에 널리 쓰이는 철편용수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있는 수리공 한광호, 한광명동무들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작업반장 김용복동무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들을수록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수많은 로력혁신자들이 나오고 공장을 들었다놓는 새로운 기적도 창조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흥분시키였다.

온 직장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보답의 큰걸음을 내디디고있었다. 지난 2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또다시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사랑에 접한 방직공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약속이나 한듯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평범한 방직공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거듭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언제나 충정의 길, 보답의 한길만을 걸으리라.

일하고 일해도 더 하고싶고 바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비약의 룡마타고 내달리고있는 혁신자들은 단지 작업반장 권혜숙, 김금실동무를 비롯한 1교대 2작업반원들과 2교대 2작업반원들만이 아니였다. 온 직장직포공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불덩이마냥 달아올라 기대를 떠날줄 몰랐다. 진정 보답의 일념만이 가슴속에 꽉 차넘치고있는 직포공들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었다.

잊을수 없는 그날 직장에서는 평범한 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온 직장에 세차게 타번졌다. 생산이 쑥쑥 올라갈수록 작업반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하는 직포공들이 늘어나고있다. 1교대 당세포비서인 리석화동무와 1교대 2작업반 직포공 김영심동무의 소행은 또 얼마나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가.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기풍이 집단안에 차넘치는 속에 정향실, 문춘숙동무를 비롯한 가정부인들이 처녀시절에 발휘했던 그 열정을 되찾고 혁신자대오속에 당당히 들어섰다.

지금 이곳 1직포직장은 년간계획완수자도 상반년계획완수자도 가장 많은 직장으로 자랑떨치고있다.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이 직장의 직포공들속에서 나왔고 로력영웅도, 선군시대 공로자도 평범한 이들속에 있다. 그들은 소리치며 달려나가고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라고.

대고조기상이 차넘치던 1970년대처럼

이달에 들어와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권사직장은 생산에서나 제품의 질제고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은 이곳 직장초급일군들의 심장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1970년대의 대고조기상이 온 직장에 차넘치게 하자!

직장부문당비서 한태식동무는 직장의 선동원들부터 발동을 걸었다. 작업반원들과 어울리며 늘 함께 있는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인것은 참으로 큰 실효를 나타냈다.

직장에서는 선동원들이 공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누구보다 깊이 학습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공장의 연혁사를 손금보듯 잘 알도록 하였다. 선동원들을 먼저 무장시킨 기초우에서 그들이 계기와 실정에 맞게 령도업적과 연혁자료를 알기 쉽고 깊이있게 해설해주어 작업반원들의 머리속에 쏙쏙 들어가게 하였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에 우리 공장의 방직공들은 어떻게 일하였는가.

속도전의 불바람속에 벌어진 70일전투기간 천생산량은 얼마나 장성하였고 전당이 동원되여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을 받아안고 떨쳐나섰던 우리 방직공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며 내달렸는가를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선동원들, 그들속에는 강명옥, 조명심, 김경미동무들도 있었다. 이들은 작업반원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며 선동을 벌린데 그치지 않았다. 남들이 휴식하는 때에도 선동자료를 연구하였고 짬시간이면 나어린 기대공들의 곁에서 살틀히 이끌어주면서 자신들부터가 다기대운동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고 질좋은 실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 발이 닳도록 기대를 순회하고 또 순회하였다. 그들은 매일 계획을 300%이상씩 수행하여 뜻깊은 2월에 상반년계획을 수행한 혁신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나타냈다. 선동원들의 뒤를 따라 온 직장이 다기대운동에 떨쳐나섰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에 누구나 자랑스럽게 떳떳이 대답하자.

직장의 청년동맹원들이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청년돌격대에 망라시켜줄것을 열렬히 청원하였다. 직장초급일군들은 그들의 제의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기대마다 《청년돌격대기대》라는 글이 새겨진 표식판도 달아주어 돌격대원들의 영예와 긍지를 더한층 높여주는 사업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김정금, 리옥성동무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고 나어린 기대공인 리은정동무를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달려나가고있다. 작업반장 윤명옥, 김순실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오랜 방직공들도 1970년대처럼 위훈창조의 앞장에 설 만만한 자신심에 넘쳐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렇다. 갖가지 실을 더 많이 뽑아 질좋은 천을 짜내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마음안고 밤낮없이 기대를 돌려가는 성실한 방직공들이 투쟁하는 전투장, 바로 여기 사랑넘친 일터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꼬리를 물고 전해지고있으니 들어보라, 그들의 혁신적성과를.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 김영심, 김옥향, 함춘옥, 리명순, 수리공 리석화,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 방적직장 연사공 추윤경동무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기록을 창조.

—방적종합직장 3정방직장, 직포종합직장 2직포직장,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전투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기세좋게 전진.

년간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대렬이 매일, 매 시각 늘어나고 어제의 새 기록이 오늘은 벌써 평범한 성과로 되는 비약의 불바람, 혁신의 불바람속에 방직공의 영예와 자랑은 더 높이 떨쳐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명흥숙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날이 갈수록 관람열기를 고조시키는 모란봉악단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속에 모란봉악단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가는 속에 새로운 종목들이 더 포함되고 출연자들의 무대의상 등이 이채로와지는것으로 하여 관람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난 27일에만도 4.25문화회관광장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커다란 기대를 안고 공연을 보러 온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의 벗들도 있었다.

《우린 사랑한다》, 《달려가자 미래로》와 같은 노래종목들이 더 늘어났으며 변화무쌍한 양상을 펼쳐보이는 공연은 처음부터 관람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은 가수들의 세련된 률동과 경쾌한 음악,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대조명 등으로 하여 초만원을 이룬 장내를 격동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매 종목들에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장내를 더욱 격동시키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을 비롯한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시려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들먹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물고기대풍이 눈앞에 펼쳐진것만 같은 정서를 자아내는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는 건드러지는 민요가락과 흥겨운 장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이게 하였다.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생기발랄한 음악형상에 담은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우린 사랑한다》, 《달려가자 미래로》와 같은 노래종목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최후승리를 향한 진군길을 억세게 걸어갈 천만군민의 맹세가 그대로 담겨있는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도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은 시종일관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가수들과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교감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맹세가 굽이치는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공연마감을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여난 악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제일나팔수로서의 모란봉악단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앞을 다투어 황홀한 공연, 정신이 번쩍 드는 훌륭한 공연을 펼친 출연자들에게 화려한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계속된다.

조 향 미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

《인민의 환희》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 첫 종목으로 오르는것은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이다.

이 노래의 예술적감화력은 공연의 시작부터 마감에 이르기까지 관중을 시종일관 흥분시킬수 있는 불씨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있으며 공연전반의 주제와 양상을 결정하는 근본바탕으로 되고있다.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형상한 노래들가운데서 첫 노래로 울려퍼진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가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과 여운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기쁨과 랑만과 환희로 충만된 생활입니다.》

사람들을 아름다운 환희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바이올린연주가 공연소개를 대신하는 속에 경쾌하게 울려퍼지는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는 무대우에 터져오르는 아름다운 경축의 축포와도 같았다.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천하제일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여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영광속에 행복속에 존엄높이
살리라
…

노래의 1절에서는 인민의 심장속에서 분출하는 열광의 환희가 어떤것인가를 꾸밈없이 진실한 인민의 생활감정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걸출한 위인을 모신 인민만이 체험할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감정이 비껴흐르는 이 노래구절을 들으며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희를 터뜨리던 영광스러운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사랑으로 가득찬 그 령도에서 더 밝은 래일을 보네 새 전설로 꽃피는 그이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라는 노래의 2절은 인민에게 삶의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는 위대한 품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3절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승리로 지심 흔들자》는 새롭고 박력있는 시적표현으로 잘 보여주었다. 후렴부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어떤것인가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가슴후련한 대답이 터져나왔다.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이것은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한 변함없는 삶의 신조,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동적이면서도 박력있는 선률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한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가 안겨준 충격과 여운은 참으로 크다.

지난 몇해사이에 우리 조국은 인민의 꿈이 현실로 꽃피는 위대한 전변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와졌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희망으로, 환희로 가득찼다.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은 더욱 강대해지고 인민의 리상은 더욱 아름다와졌다. 오늘은 모란봉악단이 펼치는 희한한 음악세계가 인민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민의 모든 락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삶의 진리로 간직하였다.

이렇듯 아름답고 벅찬 현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우리 인민의 심장이 터친 격정을 바로 노래 《인민의 환희》가 진실하고 절절하게 반영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고싶던 환희의 감정을 후련하게 대변해준 노래여서 인민들은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는것이며 모란봉악단공연의 첫 종목으로 아름답게 울려퍼진것이다.

뜻깊은 3월의 모란봉악단 공연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시대가 낳은 명곡 《인민의 환희》를 잊지 않을것이며 충정을 담아 오늘도 래일도 끝없이 부르고 또 부를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교과서수송을 위한 헌신의 낮과 밤

철도성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철도성 일군들도 있다.

교과서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철도성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성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교과서수송이였다. 교과서가 제때에 가닿아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게 되는 새 학년도 개교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올해 성에서는 교과서가 생산되는 즉시 수송을 보장하여왔지만 이달 중순에 들어와서 교과서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황해남도와 개성시에 시급히 교과서들을 보내야 할 과업이 나섰다. 한번에 6개의 수하물차가 있어야 하는 많은 량이였다.

철도수송은 의연히 긴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은 물동량을 요구하고있었다.

철도성의 일군들은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모두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교과서수송부터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업,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명령을 내리고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갔다.

이들모두가 이 교과서들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한푼의 자금도 귀한 때에 몸소 긴장한 종이문제를 풀어주시고 교과서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교과서들이였다.

사연도 깊은 이 교과서들을 학생들의 가슴에 한가득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며 성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수송전투를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이제 들어오게 될 려객렬차를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었다.

예비를 찾아내야 하였다.

일군들은 성의 해당 부서들, 평양역 일군들과 사령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림시렬차를 편성하기 위한 작전을 펼쳐나갔다.

책임사령원 리춘경동무와 송순길, 정영수동무들을 비롯한 사령원들이 직접 평양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나가 현지를 료해하고 예비를 찾으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 과정에 수하물차예비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그런데 수하물차들에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물동들이 실려있었다.

성의 일군들은 지체없이 현장으로 달려나가 물동수송을 책임진 해당 단위 일군들을 만나 긴급한 사정을 이야기해주었다. 교과서수송이 후대들을 위한 일, 나라의 교육사업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여러 단위 일군들은 자기들의 물동량대신 교과서수송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즉시에 이미 실려있던 물동들에 대한 하차작업이 진행되였다.

온 나라가 학부형이 되여 교육사업에 발벗고나서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읽으며 사령원들은 림시렬차다님표를 만들었고 렬차편성을 위한 사업을 신심있게 추진시켰다.

이렇게 되여 철도수송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교과서수송전용림시렬차가 편성되게 되였다.

기관사들과 수하물차승무원들도 수송에서 쌓인 피로를 풀새도 없이 교과서수송길에 다시 나섰으며 사령원들도 교과서상차작업이 진행되는 평양역에 달려나가 수시로 대책을 세워갔다. 이들모두가 교과서수송을 제때에 보장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후대사랑을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줄 일념으로 불타고있었다.

낮과 밤을 이어가며 3일동안 진행된 긴장한 전투였다.

이런 불같은 마음들에 받들려 렬차는 드디여 사랑의 교과서를 싣고 떠나게 되였다.

그날 성의 일군들은 평양역에 나가 떠나는 렬차를 오래도록 바래웠다. 그들의 눈앞에는 분계연선지역과 섬마을분교들에 이르기까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는 교과서를 받아안고 행복에 넘쳐 활짝 웃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공 로 혁

인민을 위하는 마음

신의주시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김영식동무와 인민보안원 리덕준동무

자정도 넘어 어느덧 새벽녘이였지만 신의주시 풍서1동의 어느 한 살림집에서는 한 녀성이 책상앞에 오래도록 앉아있었다.

그는 벌써 열번째로 새 편지종이를 꺼내놓았다. 그러나 새하얀 종이우에 또다시 떨어지는 눈물방울…

가슴속에 차넘치는 진정을 어머니당에 아뢰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 펜을 든 그였지만 한밤이 지새도록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뿐이였다.

그는 젖은 눈길을 들어 방안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삼가 우러렀다. 북받치는 격정속에 지나온 나날이 삼삼히 떠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한해전 어느날 하루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의주시인민보안서 아래단위 보안원 리덕준동무는 식사마저 잊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었다. 안해 황경실녀성은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윽고 리덕준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연히 한 주민을 알게 됐소. 쉰살을 가까이하고있는 녀성인데 부모도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내고있더구만.》

리덕준동무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황경실녀성은 남편의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늘 군중속에 들어가 살다싶이하며 그들에게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스쳐지나지 않고 원만히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남편이였던것이다.

다음날 리덕준동무와 안해는 그 녀성을 집으로 데려왔다.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황경실동무가 말하였다.

《이제부터 언니라고 부를테니 여기서 사는 동안 제 집처럼 생각하고 마음놓고 지내세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친형제, 친혈육의 정속에 꿈만 같은 나날이 흘렀다. 그러나 그 녀성은 그들부부가 자기를 데려온 까닭을 다는 알수 없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리덕준, 황경실동무가 풍서1동의 자기 집을 새 집처럼 꾸려주느라 지성을 바치고있다는것도 미처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리덕준, 황경실동무의 손에 이끌리여 그가 산뜻하고 환하게 꾸려진 집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방문을 열며 리덕준동무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벽지색갈이랑 부엌세간들이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그 녀성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말 고맙…》

목이 메여올라 말끝을 잇지 못하는 그의 귀전에 리덕준동무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주머니,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며 그들의 마음속 아픔도 그늘없이 가셔주어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 전사일따름입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였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리덕준, 황경실부부의 진정은 더욱 뜨거워만졌다. 어디 아픈데는 없는지, 땔감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늘 관심을 돌리고 어쩌다 별다른 음식이 생겨도 먼저 찾는 진실한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였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 지키는것은 인민보안원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김영식동무를 비롯한 리덕준동무와 함께 일하는 인민보안원들도 지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늘 한점 없이 이 땅을 골고루 비쳐주는 따사로운 해빛,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을 키워주신 은혜로운 품에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큰 절을 드리고싶었다.

* *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경도시의 한 평범한 녀성이 삼가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는 그의 생활상애로를 친혈육의 정으로 풀어줌으로써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이바지한 신의주시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김영식동무와 인민보안원 리덕준동무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오늘 김영식, 리덕준동무를 비롯한 이곳 인민보안원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들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더 꿋꿋이 걷고있으며 지난날 가슴속상처로 하여 남모르는 아픔을 안고있던 그 녀성도 고마운 우리 당, 어머니라 부르는 따사로운 그 품을 위해 보답의 길, 헌신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지하자원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지하자원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지하자원보호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과학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전문호 조선자연보호련맹 지하자원보호협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나라의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갈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4월 27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현시기 국토관리와 지하자원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발표회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보호하는데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나누고 도입일반화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선진적인 지하자원탐사기술의 개발도입과 지하자원의 리용가능성평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해결방도들을 밝힌 연구론문들이 호평을 받았다. 지하자원의 채취률과 선별효률을 높이고 비전통자원을 자원화하는 등 경제강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하자원과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및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가치있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시상을 하였다.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페막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페막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온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이번 전시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서는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활성비료들을 적극 개발도입하고 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 등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많은 성과자료들이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페막식이 2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평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 3대혁명소조파견단위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3대혁명소조원들, 일군들에게 우승기와 우승컵,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해나감으로써 3대혁명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독립 43돐에 즈음한

기념집회 진행

방글라데슈독립 43돐에 즈음한 기념집회가 2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기발이 드리워져있는 집회장에는 《방글라데슈독립 43돐을 맞는 방글라데슈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인민과 방글라데슈인민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박경일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 성원들과 시내근로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친선협회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은 다음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의 명의로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방글라데슈친선 대동강구역 북수초급중학교 학생소년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로씨야친선협회에서는 27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과 일행이 초대되였다.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오룡철, 한철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과 일행이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다.

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중시정치아래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하게 꾸려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행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절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

여러곳 참관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 미림승마구락부 참관

중국방문 조선로동당 경제부문 일군참관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리호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경제부문 일군참관단이 2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귀국

로씨야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까즈베크 따이싸예브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이 2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혜산기초식품공장을 찾아서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는 일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혜산기초식품공장을 찾았다.

압록강기슭에 자리잡은 공장구내에서는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작업반들사이에 대항경기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3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이곳 북방의 날씨는 쌀쌀하다.

하지만 공장구내는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열띤 모습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선수들이 쳐넣기, 받아치기, 련락, 타격, 막기를 하는데 량팀선수들의 수준이 보통 아니였다.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량팀선수들의 기술수준이 전문선수들 못지 않았다.

공무작업반의 한 선수가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옳게 판단하고 날렵하게 조약하면서 강타를 하였다.

순간 상대편선수들이 막기를 하였으나 타격이 얼마나 센지 공은 경기장 한쪽모서리에 떨어졌다.

순간 《야!》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응원자들속에서 요란한 박수갈채와 함께 북소리, 징소리가 울렸다. 선수들이 득점을 한 동무를 둘러싸고 뜨겁게 포옹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모습들이 펼쳐졌다.

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공장지배인 송혜숙동무는 종업원들의 체육열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침출근을 하면 종업원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를 진행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작업반별배구와 롱구, 탁구경기가 벌어지는데 경기승벽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다.

시적인 공장, 기업소대항경기들에 나가면 공장은 당당히 높은 등수권을 차지하군 한다.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사업에 앞장선 이곳 기초식품공장은 몇해전 모범체육공장칭호를 수여받는 자랑을 지니였다.

지배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경기장에서는 또다시 와－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경기가 마침내 공무작업반의 승리로 끝난것이다.

점심시간의 한때를 즐겁게 보낸 종업원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작업장으로 향하였다.

대중체육이 활기를 띠여 종업원들은 누구나 랑만에 넘쳐있었다.

그들은 저저마다 체육을 하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마음도 한결 젊어진것 같다고 하면서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 결의들을 터놓았다.

우리는 공장에 차넘치는 체육열풍이 더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을 단죄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은 지금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온 겨레와 전세계는 우리가 천명한 원칙적립장과 그 실천을 위해 취한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환영하면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통일의 새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침략적본성을 더욱더 드러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규탄단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동방일각에 통일국가를 세우고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정의롭게 자자손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하고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으며 장장 70년이 되여오도록 통일을 방해하고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극악한 원흉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분렬시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주었을뿐아니라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을 악랄하게 짓밟아왔다.

해방후 민족분렬영구화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소집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파탄책동과 전쟁도발위험성을 막고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리승만도당을 내몰아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의 범죄적만행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1960년대초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일어나고 그를 계기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밑에 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자 미국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그것을 하루아침에 군화발로 짓이겨버렸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 북과 남사이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온 강산이 끓어번질때 미국은 《두개 조선》정책을 전면에 내들고 각종 모략사건과 악명높은 《포커스 레티너》, 《림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고 졸지에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1980년대 북남사이에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우리의 지성어린 구호물자가 전달되였으며 예술단, 고향방문단이 서로 래왕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몽둥이를 내휘두르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일층 강화하는것으로 그에 빗장을 질렀다.

미국은 1990년대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을 때에도 《북핵위기》를 조성하고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 북남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2000년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처음으로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자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막아보려고 더욱 미쳐날뛰였다.

미국은 내외여론에 못이겨 겉으로는 6.15공동선언을 환영하는척 하였으나 뒤에서는 《무분별한 합의》니, 《전면재검토》니 하며 저들의 불만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남조선집권자를 미국에 불러들여 《이 사람》, 《이 량반》 등으로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보고있다.》느니, 《미국의 리해관계를 지키는것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협박하였으며 북남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문제를 미국과 철저히 협의할것을 강요하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부쉬공화당정권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고 험담하고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에 보조를 맞출데 대해 강박하였다.

2007년 북남수뇌상봉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을 때에는 미국이 더욱 기겁을 하면서 야단법석하였다.

당시 서울주재 미국대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 등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개최는 북의 핵폐기이전에는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경제협력은 6자회담의 효과를 감소시킬것》이라고 하면서 10.4선언의 내용을 조목조목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았다.

뿐만아니라 선언에 서명한 남조선당국자를 몰아대다 못해 그가 《정권》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보수패거리들을 내몰아 온갖 고통과 박해를 가하던 끝에 비극적죽음에 처하게 하였다.

2007년 남조선에서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친미보수《정권》을 조작한 미국은 리명박패당을 내세워 북남선언들을 전면유린하고 그 리행을 완전차단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오바마행정부는 남조선보수《정권》과의 결탁을 일층 강화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연습에 더욱 미쳐날뜀으로써 북남관계를 완전히 페허로 만들어놓았다.

미국과 리명박패당에 의해 6.15시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대화들이 모조리 중단되고 인적래왕과 물적교류들이 차단되였으며 협력사업들이 질식되였다.

미국은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까지 끼여들어 북의 《남침에 리용》될수 있다고 가로막고 분계선을 통한 북남래왕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를 조성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된다느니, 《핵과 미싸일개발에 사용되여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느니 하면서 훼방을 놓았을뿐아니라 보수패당이 《대북송금사건》을 터뜨리도록 배후조종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던 남측기업가를 죽음에로까지 내몰고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아예 중단시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조선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게 각방으로 방해하고 생산된 제품실현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등으로 질식, 고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실로 미국이 력대적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온 사실들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2

미국은 올해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평화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움직임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는 온 겨레의 념원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례없는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것은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사이에는 모처럼 대화와 접촉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였다.

미국은 응당 그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할 대신 황급히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남조선관계자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저들의 군사, 외교우두머리들을 서울에 급파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북비핵화》라느니, 《대북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횡포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들은 《북의 유화공세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과 대화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조심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리산가족상봉을 하더라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등으로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였다.

미상무성 차관보 폴 리쿼드는 서울을 행각하여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조선상품들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통상압력을 가하겠다고 을러메였는가 하면 다음기대통령후보로 나서려 하는 공화당 의원 루비오는 군사분계선일대를 돌아치면서 《북과 대화하는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북을 믿지 말라.》고 고아댔다.

지어 미국회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국제화하는것은 《대북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과 충돌할수 있으며 《대북접근은 미국남조선동맹관계를 시험할수 있다.》고 공식경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압박작전에는 백악관관계자들과 국무성의 장관, 부장관, 차관보,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미국가안전보장국 장관 그리고 미국방장관,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과 국회 등이 총동원되였다. 미국이 이처럼 부산스럽게 놀아댄것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다.

한편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미국은 정초에 이라크에서 철수하여 미본토 텍사스주에 있던 미군 기계화대대기본주력을 경기도 동두천에 기동전개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조선반도유사시를 대비하여 주일미군기지에 전진배치한다는것을 발표하였으며 미해병대를 끌어들여 괴뢰군과 함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판을 벌려놓았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에는 괴뢰군을 내몰아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여 사람들을 경악시켰는가 하면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서해의 남조선직도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북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여 세계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파탄책동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개최되자 상봉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 내외의 우려를 외면하고 대규모의 최신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그 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았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미핵잠수함 《콜럼부스》호와 미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 이지스구축함과 미싸일순양함 등 방대한 전쟁수단들을 조선동, 서, 남해에 끌어들이고 미륙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려단, 오끼나와주둔 미3해병기동군, 미해군과 공중무력까지 동원하여 《쌍룡》이니, 《맥스 썬더》니 하는 대규모련합상륙 및 공중전투훈련 등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미국방성은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국가》,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미륙군참모총장 오디어노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쟁열을 공공연히 고취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첫걸음을 뗀 북남대화와 북남관계개선움직임은 시작부터 된서리를 맞았으며 숭고한 인도주의사업도 전도가 료원해지고있다.

3

미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의에 찬 모략중상과 적대행위에 전례없이 횡포하게 매달리고있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정치, 군사적위력이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우리의 존엄과 대외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데 당황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쏠리는 내외의 이목을 차단하고 조선반도에서 대화평화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가장 잔인한 곳》, 《사악한 곳》, 《악의 국가》라고 하면서 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줴쳐댄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침략과 전쟁, 학살과 략탈로 악명을 떨쳐 세계최대의 범죄왕초, 인권유린왕국으로 락인된 사악하기 그지없는 미국이 그 누구에 대해 《잔인》이니, 《사악》이니 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오죽했으면 세상사람들이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나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겠는가.

미국무성 대변인 사키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비민주적》이니 뭐니 하며 악담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일심단결된 우리를 너무도 모르고 하늘에 삿대질해대는 격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돈이 판을 치고 서로 물고뜯으며 개싸움을 벌리는 이 세상 가장 비민주적이며 썩어빠진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마음껏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를 시비하는것이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수 없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더욱 가관이다.

미국은 저들의 어용기구에 불과한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를 내세워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북인권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무슨 《처벌》이니, 《제소》니 하고 고아대는가 하면 공화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인간쓰레기들까지 긁어모아 그 무슨 청문회니, 증언이니 하는 놀음도 벌려놓고있다.

심지어 온갖 악의 원흉으로 소문이 난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늙다리산송장이 된 몸을 끌고 서울에 기여들어 공화국북반부에서 온갖 너절한짓을 다하다가 부모처자들을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을 《영웅》으로 춰올리면서 북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력설하는 추태를 부리여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냈다.

미국은 우리가 종파오물을 단호히 숙청한데 대해 그 무슨 《불확실성》이니, 《예측불가능》이니 하면서 악담하고있는가 하면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로클리어를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위협》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 모든것이 우리에 대한 영상을 흐려놓아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에 제동을 걸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서방외신들까지도 《미국이 북의 대화평화공세에 된타격을 받고 뒤흔들리는 대조선고립압살전략을 지탱하려 한다.》, 《남북관계개선의 살얼음장우에 돌을 던지고있다.》,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있다.》, 《미국이 남북관계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고있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의 전횡과 간섭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실로 미국이야말로 북남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북남관계파국과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다.

미국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지도 70년이 되여오고 그사이 정세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승냥이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사무치고있으며 온 민족이 백년숙적 미국의 죄행을 총결산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떨쳐나서고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의 사태는 미국의 전횡과 침략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으며 내외여론으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이 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시대적추세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가는 조선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막지 못할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침략과 전쟁책동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배격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3월 27일
평 양

동족대결에 환장한 호전광들에게 준엄한 징벌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4일 괴뢰군부불한당들은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총포탄을 쏘아대고 악의에 찬 삐라들을 살포하는 범죄적망동을 저질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군부깡패들이 감히 너절한 삐라따위로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한것이다.

괴뢰군부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충정을 삶의 근본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이다.

절세위인의 애족애민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으로 찬물을 끼얹고 그칠새 없는 험악한 비방중상과 모략선전으로 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최극단에로 몰아가는 괴뢰깡패들의 망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괴뢰군부깡패들의 망동을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행위로,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수많은 침략전쟁무력이 남조선에 몰려들어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최대의 열점지대에서 벌어진 삐라살포놀음은 괴뢰패당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반공화국대결란동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지금까지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고 그 무슨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며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관계개선을 가로막아나섰다.

괴뢰군부패당은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해 합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은 비방중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망발을 줴쳐대며 신형삐라포탄까지 개발하여 배비하면서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섰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그 무슨 《신뢰》니, 《평화》니 하는 넉두리가 저들의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요설에 불과하며 애초에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매국역적의 무리, 전쟁열에 미친 호전광무리의 궤변이라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은 우리의 신성하고 존엄높은 체제를 함부로 건드리며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은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북남관계와 평화가 아무리 소중하여도 우리 최고존엄과 관련하여서는 추호의 용납이나 양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한손에는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멸적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것이며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도전해나서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야말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합의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비방중상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려놓고있는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이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3월 27일
평 양

기관차로 모조리 깔아뭉개겠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이다. 지금 우리는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른 괴뢰군부깡패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복수심으로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다.

미친개는 죽어자빠질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착스럽게 짖어대며 덤벼든다더니 괴뢰군부패당의 발광이 꼭 그것을 방불케 한다. 이놈들이 매일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도처에서 불질을 하다 못해 이제는 온 민족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린것을 보면서 심장의 피가 끓고 주먹이 떨려와 참을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객차대의 누구나 백령도와 대연평도의 악당들을 몽땅 끌어다가 레루우에 자빠뜨려놓고 기관차로 깔아뭉개겠다고 윽윽하고있는것이다.

정말 그렇다.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모독하며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괴뢰군부패당을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 골통에 오직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북침흉계만이 꽉 차있는 이런 민족의 오물들을 선군의 주먹으로 단매에 짓뭉개버려야 한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고 일단 답새기면 뼈도 추릴수 없게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뭉개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우리의 생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헐뜯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괴뢰군부패거리들은 절대로 발편잠을 자지 못할것이다.

철도성 평양객차대
중대장 조 광 수

반역의 소굴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지금 협동벌 그 어디를 가보아도 괴뢰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이 끓어번지고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이 우리의 코앞에서 총포를 쏘아대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는 삐라까지 살포하였다니 도저히 참고 견딜수 없다.

논판의 거마리보다도 못한 놈들이 하늘에 대고 무엄하게 삿대질을 했으니 이것을 과연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그것도 북남간의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그따위 날벼락맞을짓을 했다는데 전쟁도발에 환장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이다.

괴뢰패당의 목적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어째보자는것이다. 이야말로 돌멩이 갖다놓고 닭알되길 바라는 개꿈이 아니겠는가.

원쑤들이 피를 물고 날뛰면 날뛸수록 더욱 굳게 뭉쳐지고 억척같이 다져지는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쥐새끼무리가 아무리 쏠라닥거려도 맑은 하늘의 눈부신 태양의 빛발은 절대로 흐리지 못한다.

어제날 연평도에서 우리 군대의 강력한 징벌의 포화에 주먹맞은 감투꼴이 되였던자들이 벌써 그것을 망각하고 또다시 헤덤비는것을 보니 이번에는 아예 이놈들을 씨종자도 남지 않게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할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도발을 걸어올자가 한놈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라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는 반역의 소굴을 송두리채 갈아엎는 심정으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분조장 함 성 호

민족차별의식을 드러내놓은 전대미문의 폭거,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25일 총련시설에 대한 도꾜지방재판소의 강탈책동을 규탄하여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도꾜지방재판소가 총련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의 1위 입찰자로 된 몽골 《아바르》사를 부당하게 제거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24일 일본주식회사 《마루나까홀딩그스》에 매각허가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 경매수속상관례들을 무시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나 조선회관을 빼앗아내려는것으로서 일본사법당국의 민족차별의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전대미문의 폭거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도꾜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단호히 항의배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집행의 감독자라는 사명마저 저버리고 악의에 찬 수법으로 날조한 불법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도꾜지방재판소는 도저히 매각대상자로 될수 없는 《마루나까홀딩그스》를 억지로 락찰자로 끌어올렸다.

재판소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에게 입찰보증금을 환부하는 경우 그 대상에게 매각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는것이 재판소판례이다.

《마루나까홀딩그스》는 도꾜지방재판소로부터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아 이번 경매에서 완전히 밀려난 대상이다.

그런데 도꾜지방재판소가 《마루나까홀딩그스》에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는것은 세인을 경악케 할 일이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완전위법행위이다.

도꾜지방재판소가 얼마나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막뒤에서 벌린 기만극이 세상에 폭로됨으로써 백일하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도꾜지방재판소는 1월 14일 이미 경매에서 물러섰음을 인식한 《마루나까홀딩그스》에 매각허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락찰에로 유도하였을뿐아니라 환부한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그리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위한 수속상절차까지 상세히 대주었다.

도꾜지방재판소가 이와 같이 막후공작을 한 다음 매각허가결정을 내린것은 경매관례상 도저히 있을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매우 비렬하고 악질적인 행위로서 바로 여기에 법질서까지 내던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회관을 무작정 강탈하려는 속심이 너무나도 명백히 나타나있다.

채권자인 정리회수기구로 말한다면 이제까지 그 어떤 권고 등도 완고하게 거절하였으며 최고재판소의 판결후 조선회관측과 매각액수를 일시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위가 있다.

당시 합의된 액수는 더이상 양보 못할 선이라고 그렇게도 우겼던 정리회수기구가 이번에 그의 절반밖에 안되는 자금으로 매각하려는 도꾜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채권자로서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총련에 대한 차별정책과 재판소와 한짝이 되여 돌아치는 그들의 본색을 스스로 날날이 폭로한것으로 된다.

최근 조일사이에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조일정부간 회담이 예견되고있다.

도꾜지방재판소가 법도 판례도 집어던지고 불법, 불공정의 결정을 내린것은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긴것으로 된다.

재일조선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며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있는 조선회관의 역할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히려 로골적인 차별로 내려진 사법당국의 이번 결정은 조일량국인민들의 규탄을 영원히 면치 못할것이며 조일관계에 중대한 화근을 남기게 될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재판소가 조선회관에 대한 위법적인 매각결정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조선정보원은 범죄집단이라고 폭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0일 남조선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정보원이 저들의 간첩사건조작행위가 숨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중을 우롱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현 《정권》이 이번에도 정보원을 비호하며 수사방해, 진실은폐, 언론을 동원한 여론조작 등으로 몰아갈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서슴없이 사실을 날조하여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정보원은 범죄집단이라고 단죄하였다.

오죽하면 정보원내에서도 정보원개혁을 요구하겠는가고 하면서 범죄집단 정보원이 권력을 휘두르도록 더이상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8일 《정보원의 로골적인 수사방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간첩사건조작의 관계자로 검찰에 체포된 정보원직원이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보원은 저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원장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말할수 없도록 되여있다고 밝혔다.

집권자가 정보원의 이러한 행태를 그대로 두고 《철저한 수사》를 입에 올리는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중은 집권자를 수사의 방해자, 진실의 은폐자라고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우리에게는 완충지대가 없다

지금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누구때문인가.

얼마전에 미국방성은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위협》과 《도발》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미국방성은 보고서에서 우리의 장거리미싸일계획과 핵무기개발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미국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으로 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말하자면 우리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장본인이라는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강도가 강도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입에서 《위협》이나 《도발》타령이 울려나오지 않으면 그자체가 비정상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허리를 두동강 내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부터 우리의 《위협》과 《도발》나발을 불어댔다. 그야말로 력사가 오래다. 우리가 비핵국가로 있을 때에도 고아댔고 핵보유국으로 된 오늘에 와서도 그렇게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이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로 된다는 식의 날강도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계속 외워대는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 불어대는것은 추종세력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앞에서 삽살개처럼 꼬리를 젓는 졸개들이다.

그런 허튼 나발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제 얼굴에 먹칠하는것으로 될뿐이다.

명백하게 말한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증대시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방성이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들었는가 하는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미해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하려 하고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무력증강은 오바마행정부가 제시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미국이 이를 실행하자면 구실이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미국방성은 진부하고 판에 박힌 우리의 《위협》과 《도발》타령을 다시금 늘어놓은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타고앉아 확고한 지배자, 《제왕》이 되여보자는것이다.

이로부터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50%씩 전개되여있던 미해군무력을 재조정하고 대서양함대소속 무력을 뚝 떼내여 태평양함대에 배속시키려 하고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미해군무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였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1차적공격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대륙의 관문인 우리 나라를 타고앉아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할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내세우고있는 선차적인 과제는 우리의 핵억제력을 제거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우리의 강력한 보복타격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과 《도발》타령을 계속 늘어놓는것은 우리의 《핵포기》를 실현해보기 위한 국제적공조체제를 마련해보자는것이다.

미국방성은 이번 보고서에 우리의 《탄도미싸일위협》을 걸고들면서 본토방위에 대한 도전이 커가고있다고 쪼아박았다.

본토방위는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소리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본토사이의 거리는 수천km에 달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우리의 코앞에까지 저들의 《국익수호》를 위한 전선을 올리밀었다.

그래 이것이 우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

미국은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다놓고 끊임없이 핵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키 리졸브》에 이어 벌려놓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모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이다.

그때문에 전조선반도가 통채로 핵위협을 당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령토가 크지 않다. 우리에게는 완충지대란 없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무자비한 반공격만이 있을것이다.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가 다 전쟁마당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년례적》이요, 《방어용》이요 뭐요 하면서 벌려놓는 각종 합동군사연습들과 그 보장을 위해 들이미는 무력증강책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되며 도발로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위협》과 《도발》타령을 늘어놓는 미국이야말로 참으로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악한이다.

미국방성이 보고서에서 남조선군부와 협동하여 우리의 《도발》을 저지시키겠다는것, 우리가 발사하는 임의의 미싸일을 조기경보 및 추적할수 있는 두번째 감시레이다기지를 일본에 건설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는데 그것 역시 우리에 대한 위협이며 도발이다.

미국은 어리석게도 남조선과 일본을 끼고돌아가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미국본토의 안전성이 취약해진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우리는 미국이 이번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집중적으로 걸고들고 우리를 어째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데 대해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그리고 그에 맞받아 대처해나갈 강한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행에 발광적으로 달라붙을수록 그를 총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리 경 수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여러 나라에서 단체들과 인사들 성명,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스위스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15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의 항시적이며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일치한 의사를 담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억제력에 대한 똑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선핵포기》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라고 함부로 떠벌이며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벌리기 시작한 조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감자들을 가지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미국은 다른 주권국가들을 비방중상하기 전에 제일이나 바로 처리해야 할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하다.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조선은 당과 군대, 인민이 일심단결된것으로 하여 안정되여있으며 앞으로도 끄떡없이 전진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조선식사회주의를 허물려는 저들의 야망을 영원히 실현할수 없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중지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 *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쓰. 엠. 크라마렌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이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벌리고있는 침략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응당 정의를 짓밟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은 근로대중의 참다운 권리가 보장되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가 실시되는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의 리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거하고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리는 민간인학살과 수감자학대, 도청행위는 최대의 인권유린범죄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온갖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가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분렬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되며 강행되고있는것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은 핵위협과 공갈로 조선을 어째보려던 저들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이 나라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처럼 인권이 가장 원만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고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이 배정되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가 실시되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과연 미국의 눈에는 《악의 나라》, 《사악한 곳》으로 보인단 말인가?

미국은 어떠한가?

약육강식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진정한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빈부의 차이가 더욱 극심해지고있다.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하며 조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을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사회의 안정성》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3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사회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력사의 모진 시련속에서도 사회정치적불안정을 모르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서방언론들의 선전과는 달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고도의 사회정치적안정을 보장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조선의 지도사상에 있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글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고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데 대하여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도 불리우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조선사회가 최상의 정치적안정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자명한 리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비결은 둘째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에 있다.

조선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김정은령도자이시다. 끊임없이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이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있다.

모두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한 미증유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조선에서 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일심단결에 있는것이다.

비결은 셋째로 이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에 있다.

태여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것을 응당한 권리로 행사하고있는 인민, 그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을 의무로 지니고있는 나라, 사람들이 로동과 휴식의 권리,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이다.

조선에서는 세금을 모른다. 세금이 완전히 철폐된지 이미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누구나 무료교육의 실시로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사람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다.

조선에서의 무상치료제는 의료봉사과정에 필요한 모든것을 무상으로 하는 완전하고 철저한 무상치료제이다.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있다.

국가는 살림집건설을 인민들에게 문화적이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믿기 어렵지만 살림집들을 국가투자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제도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일념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재침의 칼을 벼리는 사무라이후예들

섬나라 일본땅에서 사무라이후예들이 언제든지 재침의 칼을 빼들고 나설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세계언론들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오는 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형편이다.

오늘날에 와서 일본집권세력은 재침야망을 헌법우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한 고리로 지금 현행헌법에 의해 금지되여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다름아닌 일본집권자가 헌법에 도전하여 제멋대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있다.

그는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을 둘러싸고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는것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헌법해석문제와 관련하여 내각법제국 장관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심산을 드러낸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의 한 대학교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게 하는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은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은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견해로 헌법상의 기본규칙이 바뀐다면 정치가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 아베의 지배이라고 혹평하였다.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과 병행하여 일본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한 《무력공격사태법》과 《자위대》법 등 10여개의 기존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평화헌법》이 묶어놓은 재침의 바줄들이 하나둘 풀리고있는것이다.

오래전부터 핵무장화의 야심을 추구해온 일본이 이제는 핵이발을 스스로 드러내고있다.

최근 일본이 랭전시기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던 40~50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무기급플루토니움 331kg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있은 사실이 밝혀져 세계의 눈초리가 집중되였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외상으로부터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튀여나왔다.

한편 과거침략죄행을 극구 부인하기 위한 극우익세력들의 란동이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사회적으로 《가미가제》(자살특공대) 대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대대적으로 상영되고있다. 일본의 침략전쟁력사를 미화하고 전쟁광기를 선전한 이 영화에 대해 집권자까지도 《매우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찬미》를 아끼지 않을 정도이다.

지어 가고시마현의 어느 한 회관에 보관되여있는 《가미가제》 대원의 유서, 편지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줄데 대한 신청서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뻐젓이 제출되였다.

과연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력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수 있는가.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돈 일본우익세력들이다.

이처럼 잘못된 력사관을 계속 고집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나오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이 다시는 솟아날수 없는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경제 침체, 실업자와 범죄 증대

미상무성은 18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착공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일본의 도꾜에서는 살림집판매량이 24.1% 줄어들었다.

이것은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2월에 상품무역적자가 8 003억￥에 달하였다.

19일 이 나라 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도이췰란드의 경제전문가들속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8일 한 연구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월현재 경제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지수가 전달에 비해 9.1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딸리아에서 1월에 국가채무가 2조 800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205억€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14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 *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증대되고있다.

20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5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2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5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 *

이딸리아의 남부지역에서 18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습근평총서기 당의 군중로선교육 및 실천활동에서 간부들이 앞장설데 대해 강조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18일 하남성 란고현에서 간부들이 당의 군중로선교육 및 실천활동의 앞장에 설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도간부들이 당의 군중로선교육 및 실천활동과정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선택적인것이 아니라 전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각급 지도간부들은 일반당원으로 이 활동에 참가하여 모든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작풍건설을 틀어쥐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도덕수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24일 한 외교석상에서 지역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동아프리카지역 나라 인민들앞에 나서는 도전들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지역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통합이 지역나라 인민들모두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심각한 방사능오염

일본에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피해가 의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도꾜전력회사는 발전소의 탕크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루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탕크가까이에 있는 관측용우물에서 채취한 지하수로부터 스트론티움-90 등 β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L당 120Bq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은 루출된 오염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서방의 경제제재 배격

유럽동맹주재 로씨야상임대표 울라지미르 치죠브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배격하였다.

로씨야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로씨야은행과 일부 국가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당한것으로 락인하였다.

서방나라들의 부당한 처사 비난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쟈니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횡을 부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서방나라들이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정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인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책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추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11일 한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슬람교나라들의 경제무역관계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서방의 음모책동을 폭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은 이슬람교국가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저들의 구속에서 벗어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이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뉴대를 한사코 방해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무장관의 망발 규탄

베네수엘라외무상 엘리아스 하우아 밀라노가 최근 까라까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무장관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미국무장관 케리가 미국회에서 발언하면서 베네수엘라정부가 테로깜빠니야를 벌린다느니, 인권을 유린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헐뜯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베네수엘라에서 폭력을 조장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락인하였다. 케리야말로 베네수엘라인민에게 있어서 살인자라고 단죄하고 그는 자기 나라는 세계면전에서 미국의 폭력조장행위를 까밝힐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파키스탄인민들

협잡정권밑에서 한숨속에 사는 미국민들

얼마전 미국에서 의료보험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의료보험제도로 말하면 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2012년 대통령선거경쟁때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내들었던 《공약》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미국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의료비가 비싸면 봉사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겠는데 정반대이다. 의료봉사의 수준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한심해지고있는 형편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걸고 하등의 필요도 없는 치료나 각종 검사, 수술 등을 하고는 환자들에게서 돈을 말끔히 털어내고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번 갔다오기만 하여도 수천US$가 드는 경우가 보통이며 구급치료인 경우 하루입원비만도 1 000US$가 훨씬 넘는다. 일반적으로 충수염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몇만US$를 내야 한다.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병이 나도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현 대통령 오바마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의료보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들어 대통령벙거지를 썼다.

그러나 오바마가 제창한 의료보험제도는 민주, 공화 량당사이에 치렬한 쟁점으로 되였다. 그것은 오바마가 열성껏 부르짖은 의료보험제도개혁을 실시하자면 거의 1조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기때문이다. 심각한 채무위기속에 허덕이는 판에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하는것을 놓고 국회에서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지난해 미국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예산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량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국가채무가 국회가 설정한 법적한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행정부는 많은 빚을 지고서라도 어떻게 하나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지지률을 올려세우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의료보험제도개혁법실행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것이였다. 공화당이 그것을 결단코 막아나섰다. 하기는 오바마가 자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하였다는것을 빤드름히 알고있는 공화당이 호락호락 넘어갈리 만무한것이였다. 공화당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들이댔다. 둘 다 타협할수 없는 극한점에 이르자 정부가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오바마의 인기률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얼마전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국회 하원 의원보충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당선되였다. 이것은 국회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확고히 압도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것이나 같다.

사실 의료보험제도개혁안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되여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속에서는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것이며 누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데 대해 강한 의문을 던지고있다.

지난 2월 미국회예산국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오바마의 의료보험제도개혁법으로 인해 2년이내에 2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에서 의료보험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선 원인은 딴데 있지 않다.

미행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이 법리행에 따른 벌금조항을 쪼아박아넣었다. 그 조항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여있다. 올해에는 어른 1명당 95US$, 자녀 1명당 47.5US$씩, 가족당 285US$씩 부과된다고 한다. 만일 보험가입을 계속하지 않게 되면 해마다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16년이후에는 어른들의 경우 695US$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현재 미국민들가운데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은 4 800만명으로 계산되고있다. 벌금을 피하려면 그들은 이달말까지 련방정부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거래소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강제로 의료보험상품을 사라는것이다.

결국 이번에 의료보험가입자가 늘어나게 된것은 그들이 정부가 취한 벌금조항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껏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로 말하면 대다수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안정된 일자리조차 없는 평범한 근로대중뿐이다. 이들은 이번에 할수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이 설사 의료보험에 든다고 하여 의료상혜택을 받는다는 담보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보자.

미국의 스탠포드시에 사는 어느 한 주민이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 그는 저소득자들에게 발급되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있었으나 병원측에서는 그것을 리용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구실을 대며 치료를 거부하였다.

동행한 친척들이 20만US$의 엄청난 치료비를 문 후에야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나 그는 3일후에 사망하였다. 사망한 환자는 돈이 없다는 리유로 병원사체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화장조차 해주지 않았다.

또 이러한 사실도 있었다. 한 사람이 너무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 의사들이 요구하는대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촬영을 하였다. 이상하게도 진단을 받던중 병증상이 가라앉았다.

그런데 두달후 병원측에서 보내온 청구서를 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간단한 진단을 받은 비용이 2만 6 000US$가 넘었던것이다.

그는 얼마 안되는 보험금이라도 진단비에 보태려는 희망을 걸고 보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당한 구실을 대면서 돈을 지불하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보험에 들었다고 하는 일반사람들의 처지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이른바 의료보험제도라는것은 미국반동지배층이 저들의 인기를 올리고 근로자들의 돈을 빨아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기에 미국내에서는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제도인가 하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라는것이 극소수의 지배층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며 정부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하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처지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ㄱ-41048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